광주시청 김국영·강다슬, 남녀 100m 나란히 우승

나주서 열린 실업육상선수권
강한 맞바람 뚫고 압도적 레이스
국내 단거리 일인자 자리 지켜
광주시청 모일환은 4위 머물러

광주시청 김국영(31)과 강다슬(30)이 남녀 100m의 지존임을 재확인했다.

김국영은 4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2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남자부 100m 결승에서 10초5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국영은 준결승에서 10초47를 기록하며 1위로 결승에 진출,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치면서 우승했다.

2위는 10초71의 김태효(파주시청), 3위는 10초73의 이규형(국군체육부대)이 차지했다. 광주시청 모일환(23)은 10초74로 4위에 머물렀다.

최근 종아리를 다친 김국영은 기록보다 컨디션을 점검하는 무대였다. 기록상으로는 지난 3월 제26회 전국실업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초33, 지난달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0초42에 못 미쳤다.

김국영은 다음 달 7일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국가대표팀과 함께 참가, 남자계주 경기에 나선다.

그는 오는 7월 2022오리건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9월 2022항저우아시안게임을 겨냥하고 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기준기록(10초05)을 통과하거나 랭킹 포인트를 쌓아 출전권을 획득해야 출전할 수 있다. 김국영은 9초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강다슬은 여자부 100m 결승에서 12초02를 기록, 이민정(시흥시청·12초17), 김소은(가평군청·12초30)을 제치고 우승했다.

강다슬은 12초07로 준결승을 1위로 통과했고 결승에서 11초대를 노렸으나 마지막 피니시라인을 통과하며 엉덩이 근육에 통증을 느끼면서 12초대를 기록했다. 강다슬의 12초대 기록은 올 시즌 처음이다.

강다슬은 여자 100m 한국신기록을 노린다. 한국 여자 100m 기록은 1994년 이영숙이 기록한 11초49다.

강다슬은 지난 3월 실업육상대회에서 11초59를 찍기도 했다. 다만 이때 바람이 초속 2.1m로 불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강다슬은 2020년(11초75), 2021년(11초87) 한국 여자 100m 연도별 최고 기록 보유자인 만큼 올해 자신의 개인 최고기록인 11초63을 넘어선 뒤 한국신기록 경신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강다슬은 이달 말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실업육상경기 시리즈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김국영의 목표는 한국신기록이다.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뒷바라지 할 것"이라면서 "강다슬은 레이스 마지막에 통증느꼈는데 병원 진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국영

강다슬

우상혁, 실외 높이뛰기도 올 시즌 세계 1위

실업육상선수권 2m32로 우승

'스마일 점퍼'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2022년 육상 남자 높이뛰기 실외 경기 세계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실내 경기 세계랭킹 1위도 우상혁이다.

우상혁은 4일 나주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2022 나주 실업육상경기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2를 넘어 우승했다.

이날까지 올해 실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2를 넘은 선수는 우상혁 단 한 명뿐이다.

경기 전 해미시 커(호주), 베논 터너, 어니스트 시어스, 다리어스 카빈(이상 미국)과 함께 2m30으로 공동 1위였던 우상혁은 이들을 2㎝ 차로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섰다.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는 우상혁은 이날 순위가 아닌 기록과 싸웠다.

2m20을 1차 시기에 넘어서는 순간 이미 1위를 확정했다.

2m24 1차 시기는 실패했지만, 2차 시기에 가볍게 바를 넘었다. 높이를 2m28로 높인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는 바를 건드렸지만, 박수를 유도하고 다시 도약해 성공했다.

우상혁은 손가락 두 개를 펴며 '2m32'를 신청했다. 종전 2022시즌 실외 경기 세계 최고 기록 2m30 보다 2㎝를 높였다. 우상혁은 1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고, 껑충껑충 뛰며 포효했다.

다음 목표는 자신이 보유한 한국기록 2m36보다 1㎝ 높은 2m37이었다.

우상혁은 아쉽게 1, 2, 3차 시기에 실패해 한국기록 경신에는 실패했다. /연합뉴스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챔피언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19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일반부 결선에 출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준우승 축하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정민곤)는 지난 3일 도시공사 핸드볼선수단을 초청해 2021 SK 핸드볼코리아 리그 2위 및 챔피언결정전 준우승 축하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핸드볼 팀 팬클럽 '반딧불이'가 제작한 선수단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유관기관 감사패 증정, 사장 격려사, 감독 소감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오세일 핸드볼팀 감독과 선수단 전원이 참석했고 유석우 광주핸드볼협회장, 이평형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민곤 사장은 "광주 홈경기 첫 승을 시작으로 챔피언 결정전 진출까지 공사 핸드볼 팀의 새 역사를 쓴 오세일 감독과 선수단 덕분에 코로나19로 지친 광주 시민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됐다"면서 "앞으로 선수단과 임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핸드볼선수단 운영비로 올해부터 1억원을 증액해 연간 14억 원을 광주시와 함께 지원하고 있으며, 도시공사 자체예산을 편성해 노후한 선수단 대형버스와 숙소 가전품을 교체하는 등 핸드볼선수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고 역도 조민재, 세계주니어선수권 동메달

용상에서 145kg 들어

조민재(18·전남체고)가 세계역도주니어선수권대회 용상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조민재는 3일(현지시간) 그리스 헤라클리온에서 열린 2022 세계주니어선수권 남자 61kg급 경기에 출전해 인상 111kg, 용상 145kg, 합계 256kg을 들었다.

인상에서 9위로 밀린 조민재는 용상에서 160kg을 든 모리스 밀러(미국), 146kg의 대니얼 카이세도(콜롬비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용상 2차 시기에서 145kg에 성공한 조민재는 3차 시기에서 150kg에 도전했지만, 바를 놓쳤다.

조민재는 인상에서의 아쉬운 성적으로 가장 중요한 합계(256kg)에서는 7위에 그쳤다.

이 체급에서는 밀러가 합계 276kg(인상 116kg·용상 160kg)으로 우승했다.

여자 55kg급에서는 니나 스터크스(벨기에)가 인상 93kg, 용상 111kg, 합계 204kg을 들어 정상에 올랐다.

러시아 침공으로 힘겨운 상황에서도 대회에 출전한 우크라이나의 스비틀라나 사물리아크는 인상 89kg, 용상 103kg, 합계 192kg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여자바둑 유망주 김은지, 항저우 AG 대표팀 막차 합류

한국 여자바둑계의 유망주 김은지(15) 2단이 마지막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 티켓을 획득했다.

김은지는 3일 오후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바둑 국내선발전 여자 결선 5라운드에서 오정아 5단에게 160수 만에 백 불계승했다.

이로써 5전 전승을 기록한 김은지는 남은 6라운드 결과에 상관없이 여자 선발전 1위를 확정했다.

2020년 1월 프로 입단해 그해 10월 2단으로 승단한 김은지는 차세대 한국 여자바둑을 이끌어갈 '천재 기사'로 평가받고 있다.

4명이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여자대표팀에는 여자랭킹 1·2위인 최정·오유진 9단이 랭킹 시드를 받아 선발됐고 김채영 7단은 국가대표팀 자체 리그를 통해 발탁됐다.

6명이 출전하는 남자 대표팀은 랭킹 1·2위인 신진서·박정환 9단과 국가대표 자체 리그를 통과한 변상일 9단, 김명훈 8단이 확정됐다. 남은 2명은 6일 열리는 국내 선발전 최종 6라운드에서 결정된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12년 만에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개최되는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남녀 단체전과 남자 개인전 등 금메달 3개가 걸려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2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3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배드 가이즈, 극장판 엉덩이 탐정: 수플레 섬의 비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4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5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앵커
6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토르: 마법 검의 전설
9관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
7관 씨네커플	극장판 엉덩이 탐정: 수플레 섬의 비밀, 신비한 동물들과 덤블도어의 비밀, 서울괴담
8관 씨네커플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공기살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3회 정기연주회
광주의 영웅들에게
일시 : 2022.05.17.(화)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524-5086

광주시립교향악단 어린이날 특별음악회
라바와 함께하는 키즈클래식
일시 : 2022.05.05.(목)~07.(토)
장소 : 광주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524-5086